

“연말 특수 기대도 안해”...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들

내일 거리두기 발표...“영업제한 완화 없으니 천막농성” “2년간 정신적 피해 커”...‘백신 패스’ 논쟁 형평성 지적

“위드코로나? 영업제한만 풀어주세요...연말 특수는 기대도 안 합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60%에 육박하면서 ‘위드코로나’ 시대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강력한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들이 ‘영업제한을 풀어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따라 영업제한이 완화되지 않을 시 대규모 천막농성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백신 패스’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손님을 가려 받아야 하나’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국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59.6%로, 1차 접종 완료자는 77.9%다.
광주지역은 58.9%로, 타 광역시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높은 점

수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15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 전환 전,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를 두고 ‘영업제한만이라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영업제한 등이 완화되지 않을 시 천막농성 등 시위·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가게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다”며 “장기간 방역당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버틸 만큼 버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 특수도 잊은 지 오래다.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 아니냐”며 “결국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영업제한에 한숨만 나온다.



아름다운 선율 들으며 ‘코로나 극복’ 코로나19 정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의 장인 ‘브런치 힐링 버스킹’ 거리공연이 13일 낮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하고 있다. 광주 서구가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침체된 사회분위기 속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적 감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번에는 영업제한을 꼭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완화되지 않을 경우, 결

국 작은 움직임도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

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며 “1년8개월 동안 경제적인 손실도 있었지만, 정신적·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우울증

까지 찾아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지역 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도 정부의 ‘백신 패스’ 도입 여부가 논란이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지적까지 나온다.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 사이에서 다중 이용시설 제한 등을 적용, 일부에서 패널티(반칙)는 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좋은 일이지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백신패스’까지 적용해 손님을 차별하면서 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지역 내 변화가는 젊은 층이 대다수인데, 20·30대 백신접종률은 낮지 않다. 결국 그 안에서 또다시 일부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현행 고강도 방역 조치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영업시간·인원수 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 중인 이들은 15일 새로 발표될 거리두기 개편안에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오는 20일 총궐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 ‘유명무실’

위원회 구성 이후 회의 고작 1건...한병도 “피해자 보호 정책 힘써야”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구성된 광주·전남경찰청 내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광주·전남경찰청 피해보호자 추진위원회는 각 2020년 10월21일·2017

년6월12일 구성됐다.
이 기간 광주·전남경찰청 피해보호추진위원회 회의 회수 실적을 살펴보면, 광주·전남 두 곳 모두 고작 1건에 불과했다.
광주는 2020년 10월21일 구성과 동시에 한 차례, 전남은 2017년 6월12일 구성하고 한 달 뒤인 7월12일 한 차례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16곳에 설치된 시·도경찰청 피해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광주청, 울산청, 경기남부청,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전남청, 제주청 등 모두 8곳으로 전체 절반에 달했다.
아울러 작년에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광주청, 경기남부청과 올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한 서울청 등 3곳을 제외하고는 2020년 이후 회의가 개최된 곳

이 없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16일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개최된 회의는 전무했다.
한 의원은 “각 시·도경찰청은 피해자 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회의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시국에 공공기관 단체행사라니’

최인호 “여수광양항만공사 95명 등산 체육·회식 모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 대응행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대면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기업에서 대규모 체육대회와 단체 회식, 동호회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방역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항만공사 등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규모 체육행사, 단체 회식을 시행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3곳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코로나 유행이 한창이던 시기에 95명이 모이는 대규모 등산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본사가 있는 광양에서 1시간 거리

에 있는 장성군 축령산으로 단체버스를 이용해 이동하고 등산 후 인근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단체 식사를 했다.
축구, 영화감상 등 동호회 지원예산은 2019년 1천987만원에서 2020년 2천62만원, 2021년 2천627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해 코로나 상황에서 직원들의 대면 활동을 장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항만공사는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4천362만원을 동호회 활동비로 지급한 가운데 이 중 2천932만원은 동호회 직원들끼리 인건 나이키 매장 등 영화관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나눠먹기라

는 경우로,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 지자 상품권 나눠먹기 라는 핑수를 부린 것이란 지적이다.
울산항만공사도 지난해와 올해 6월까지 동호회 활동비로 1천532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만 10차례에 걸쳐 121명이 참여하는 부서별 단합대회를 개최한 바 있었다.
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들이 대규모 체육대회와 단체 회식 등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에 역행하고, 상품권 나눠먹기라는 핑수를 부린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청, 병설유치원 통폐합 철회하라”

학벌없는 시민사회 모임, 반대 의견 배제·졸속행정 비판

광주 교육시민단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학벌없는 시민사회 모임은 지난 7일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 브리핑 관련,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의 ‘통폐합 반대 의견’과 교육청 직원들의 ‘통폐합 유예의견’을 존중하고 시교육청이 유아공공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해명만 늘어놓고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지지부진하게 끝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통폐합 대상 설명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반대 의견을 배제하고 ‘재원 유야 졸업 후 추진 시기 조정 요구’가 이견의 전부인 양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리핑에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지난 8일 교육청이 연휴를 틈타 ‘2022학년도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행정예고’를 기습 감행했다”며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사안을 급박한 일정으로 추진하는 졸속행정이 더 큰 문제다”고 비판했다.

주택 철거하다 구조물에 깔린 집주인 ‘중태’

목포에서 주택 철거 작업을 하던 집주인이 무너진 구조물에 깔려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0분께 목포시 금동에서 철거 중이던 주택 2층 바닥이 아래로 무너져내렸다.
당시 바닥을 철거하려고 망치질을 하던 집주인 A(62)씨도 함께 떨어지면서 잔해에 깔렸다. A씨는 출동한 구

조대에 의해 20여분만에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주택은 1970년 세워진 무허가 건물로 철거 신고 역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목포시는 파악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부터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 | 책임 A/S
- |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 | 오토매틱 수리 전문
- |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급매 전문

[돈되는 상가]

- 나주시 용산동 가족놀이 테마공원(10만평) 입구 4차선 대로변 제1층 주거지역대지2,281㎡(690) 단층건물 937.52㎡(283.6) 매가:9억5,000 ***대형음식점,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역 비주택 원룸]

- 자연녹지 3,467㎡ 2층 건물 3동 룸60개
- 급매8억 ***월1,000만원 수익 가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량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 ***부동산 무엇보다엔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